

초등학교 입학초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강 상¹, 류경희^{2*}

¹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²원광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The Lif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in Primary School Entrants': A test of school adjustment's mediation effects

Kang Sang¹, Kyung-Hee Ryu^{2*}

¹Director, Go Chang Boduminaunmi Child-Care Center

²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Educational Innovations, Wonkw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입학초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전주지역의 25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601명을 대상으로 아동 자아탄력성 검사, 학교생활만족도 검사, 삶의 만족도 검사도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분석하고, SPSS 22.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입학초기,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between them among first grade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children's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collected data from 601 first graders at 25 elementary schools in the Jeonju area and analyzed them with the SPSS 22.0 and AMOS 22.0 statistical program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factors of children's life satisfaction,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and secondly, both of their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had impa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their ego-resilience had influenc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via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for supports at various levels to increase the school adjustment abilities of first graders as well as their ego-resilience in order to improve their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First Grade in Elementary, Primary school entrants, Life satisfaction,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Ryu(victory9626@hanmail.net)

Received August 2, 2019

Revised September 24,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OECD가 발표한 '삶의 질(How's Life)'보고서(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회원 34개 국가 중 27위, OECD 평균 6.6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5.8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OECD 조사 중 처음으로 아동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으로, 아동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래관계, 생활양식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었다(http://www.oecd.org에서 2017년 7월 14일 인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 역시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에서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즉, 우리나라 아동이 다른 나라의 아동에 비해 삶의 만족도를 낮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성장기 이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대인관계, 직업 성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2]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을 통해 자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발달되고 또 노년까지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3]. 그리고 이제 삶에 만족하는가의 문제는 성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초기의 아동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한 장소이다.[4]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초등 입학 준비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수업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초기의 아동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5].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과 Yun, Lim[6]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인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아동 개인의 내적 요

인 즉, 교사와 친구관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등의 변인이 아동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지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8,4].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9,10]은 아동기 삶에 대한 만족은 정서적 안정과 성공적인 학교적응, 질 높은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관여하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학교생활적응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나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11]. 이처럼 아동이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은 평생의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최근 초등학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4].

따라서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평생의 발달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5]. 특히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으므로 [13] 아동기 삶의 만족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학교생활 및 환경적 요인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다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교육기관에서는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초등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활동들을 접하게 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많은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유아교육분야에서 영유아기를 포함한 아동기에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14]. 자아탄력성이란 외부의 위협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능력으로[15], 단순한 적응과 달리 위기상황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하는 개인적 자원 중 하나이다[16]. Cho와 Choi[10]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아동에게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후 청소년기 발달과정을 거치는데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요인[8]으로 부각되면서 아동의 생활 적응은 물론 삶의 질,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저항력인 자아탄력성은[17] 인간관계 또는 학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와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18]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부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19].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상황에 적절한 조절전략을 구사하여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20,21] 긍정적인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아탄력성과 아동의 삶에 관한 선행연구들[22-24]은 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친구나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교육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학업, 친구·교사와의 관계가 원만

할 때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25] 이때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바로 자아탄력성으로,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을 통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변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동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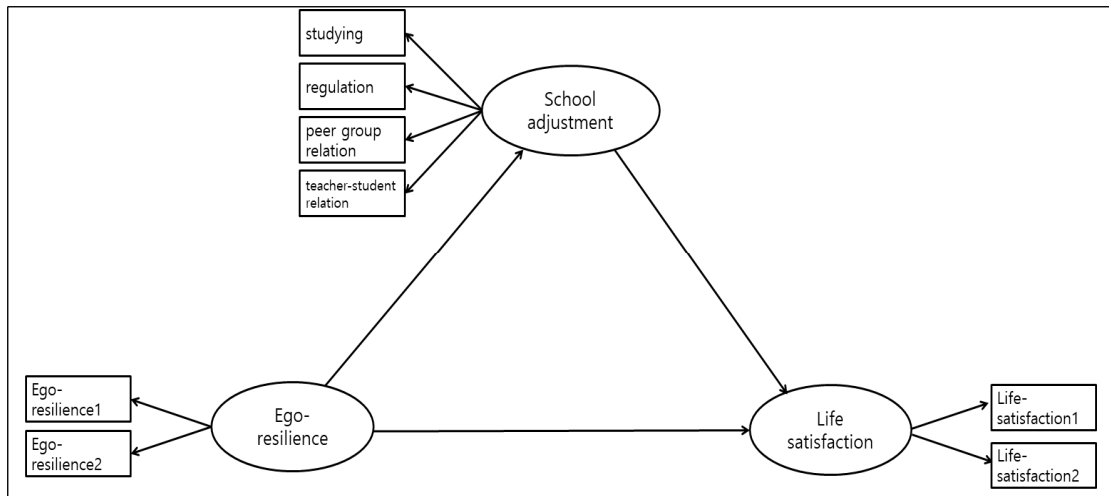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지역의 25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640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지의 신뢰성이 부족한 39부를 제외한 601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월령은 87.88개월($SD=.47$)이고, 남아 321명(53.4%), 여아 280명(46.6%)이다. 출생순위는 첫째 및 외동이

403명(67.1%), 둘째 105명(17.5%), 셋째 이상 93명(15.4%), 가족유형은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478명(79.5%), 그 외 조부모나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123명(20.5%)이며, 연구대상 중 맞벌이(562명, 93.5%) 가정이 가장 많았다.

2.2 연구도구

2.2.1 자아탄력성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Yu와 Sim[19]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Chae[2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단일요인,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응답방식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2.2.2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임정순(1993)이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를 수정·보완한 Woo[2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의 4개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문항별 응답방식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2.2.3 삶의 만족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4)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Han[2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이 얼마만큼 동의하는지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문항별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5월 28일~7월 6일까지 6주 동안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인근의 초등학교 1학년 35명을 대상으로 검사도구에 대한 적절성(검사시간과 문항수, 검사 방법)을 확인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삶의 만족도 척도에서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2개 문항을 수정하였다(내 삶의 여건→현재 나의 생활,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것).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거나 학교장에게 배부하여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이때 선정된 학교의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학교의 교장 및 교감의 협조를 얻어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중요성,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하여 연구

의 이해를 높였다. 이는 검사도구가 자기보고식 척도로 아동이 직접 설문에 응답하여야 하므로 담임교사의 설문이해도를 높여 아동의 설문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었다.

2.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AMOS 22.0을 이용하여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인과관계를 구조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

3.1.1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의 관계

측정변인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측정변수의 왜도가 2를 넘지 않고,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29].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도와 첨도 모두 1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모형은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의 모든 요인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 삶의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 < .01$)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요인도 삶의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3.1.2 측정모형의 적절성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이 .67,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의 상관이 .54,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이 .54로 잠재변인들이 적절하게 변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chi^2=88.61(p=000, df=17)$, NFI=.985, TLI=.974, CFI=.988, RMSEA=.042로 나타났다. χ^2 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편차에도 쉽게 유의해지므로 적합성 검토 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한다[30]. 이에 NFI,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10이하일 경우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하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		Ego-resilience1	Ego-resilience2	studying	regulation	peer group relation	teacher-student relation	satisfaction1	satisfaction2
Ego-resilience	Ego-resilience1	1	.64**	.38**	.37**	.46**	.35**	.41**	.40**
	Ego-resilience2		1	.38**	.28**	.36**	.33**	.37**	.38**
School adjustment	studying			1	.48**	.41**	.45**	.33**	.36**
	regulation				1	.39**	.48**	.27**	.28**
	peer group relation					1	.44**	.31**	.32**
	teacher-student relation						1	.31**	.31**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1							1	.65***
	satisfaction2								1
Mean		9.49	10.49	10.47	9.01	10.04	9.32	1.60	3.69
S.D.		2.54	2.78	2.12	2.51	1.82	2.94	.69	1.32
Skewness		-.02	-.03	.10	.01	-.19	.26	.62	.37
Kurtosis		.02	-.06	.74	-.20	.79	-.16	.04	-.29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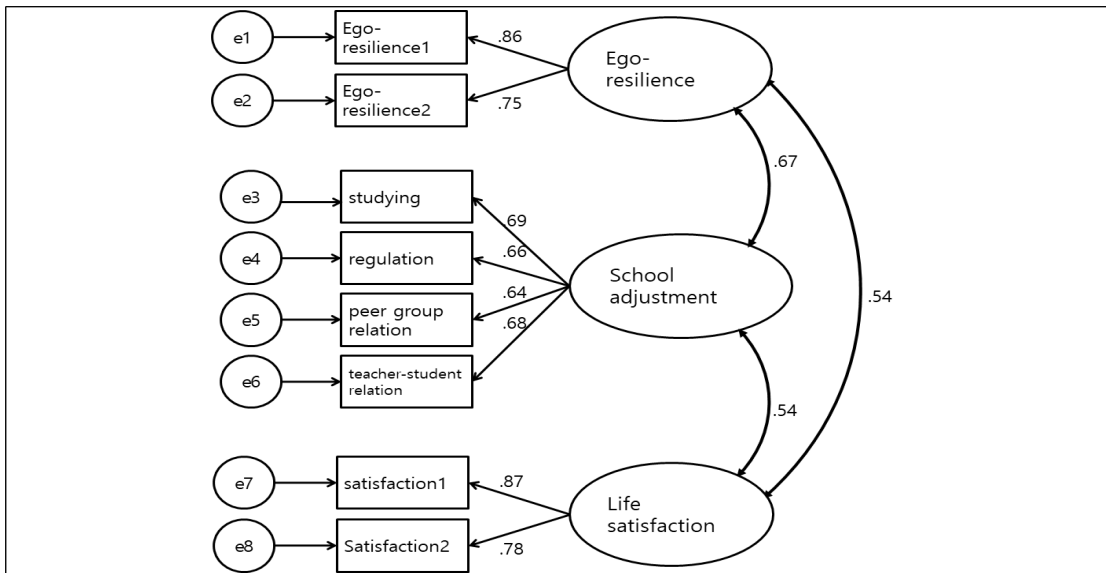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2 연구모형의 적절성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88.61(p=000, df=17)$, NFI=.985, TLI=.974, CFI=.988, RMSEA=.042로 나타났다, χ^2 를 제외한 기타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 ($\beta=.374, C.R=.019, p < .001$), 삶의 만족도($\beta=.083, C.R=.101, p < .001$)에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적응은 삶의 만족도($\beta=.149, C.R=.018, p < .001$)에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3.3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변인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에 대한 결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잠재변인 간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며 높아진 학교생활적응은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생활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잠재변인이 설명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SMC), 삶의 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의해 34.5%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45%가 설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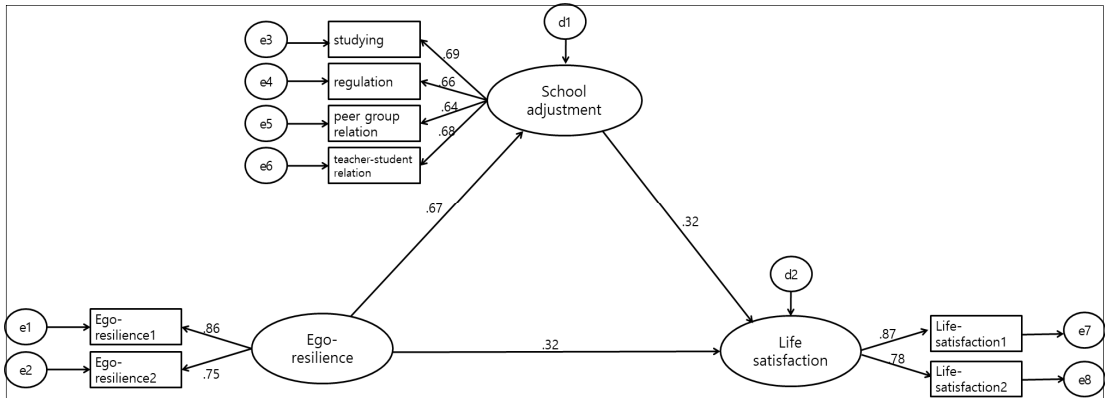


Fig. 3. Amos Test of Proposed Model

Table 2. Estimated Model

Path			B	β	S.E	C.R
ego-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374	.671***	.019	19.517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083	.321***	.101	8.453
School adjustment	→	Life satisfaction	.149	.321***	.018	8.110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독립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선정하고, 매개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연구 가설에 의해 설정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가설이 입증되었다.

첫째,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의 모든 경로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Choi 와 Yu[31]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 Kim[2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조절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는데[17,32] 본 연구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상황대처능력을 키워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힌 Masten[33]의 연구,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 학교생활 전반에 잘 적응한다는 Gu[34]의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볼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주변환경 변화에도 적절하게 자신을 조절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어 삶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적응은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생활적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학교생활적응은 이들의 경로에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의해 34.5%가 설명되었고, 학교생활적응변인의 매개효과로 인해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행복, 심리적 안녕 등 삶의 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35,12,8,4,31,36,33], 자

아인식과 삶의 만족 간의 깊은 연관을 밝힌 연구들 [37,38,2]과 맥을 같이 한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변인으로서[32]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므로써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유아시기부터 자아탄력성 증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이 우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환경으로서 학교는 교사 및 친구관계를 통한 인간관계, 학교규칙 등을 학습하는 사회화의 배움터로 학교생활의 적응여부는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 Choi 와 Yu[31]의 연구를 지지하며,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Park 과 Lee[4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초등학교 입학초기 아동은 생활 범위가 가정에서 학교사회로 확대되므로[39]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일은 이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유아교육기관과 달리 성취도 중심의 학교기관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느끼는 차이는 매우 큰 바, 초등학생 입학 이전인 유아시기부터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생이 지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킨다는 Her[41]의 연구, 자아인식의 한 영역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역할을 밝힌 Yu 와 Park[42]의 연구,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Park 과 Lee[4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적 요인과 학교 및 환경적 요인 또한 중요한 매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자면,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학이전 시기부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주지역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지역을 비롯한 기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4차 산업시대와 융복합 시대에 맞추어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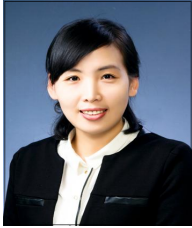
REFERENCES

- [1] Save the Children & Seoul University. (2015).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Children's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ldren's Quality of Life in Korea.
- [2] Y. R. Hong, K. J. Jang & J. S. Choi. (2016)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 Testing mediation model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1), 179-189.
- [3] G. Vailant, (2010).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the landmark*. Seoul: Frontier.
- [4] H. J. Jo & J. Y. Yoon. (2015). The Influence Factor of Elementary Student's Life Satisfaction. *Humanit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34(1), 157-187.
- [5] S. Y. Kim. (2009). *Relationships among the mobile phone addiction, Impulsivity,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 [6] J. H. An, Y. D. Yun & H. S. Lim (2016). The Life Satisfactio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2), 1738-1916.
- [7] J. Y. Kim. (2008). *Relations among ego-resilience, subjective well-being, stress level and coping methods perceived by elementar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8] S. H. Jang, E. H. Choi & J. Y. Lee.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Effect of Elementar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Everyday Life Stress.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5(2), 353-364.
- [9] Y. S. Park. (2000). *The impact of the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 functioning*. Paper presented at the 15th of the IACCP. July 16-21, Pultusk, Poland.
- [10] Y. G. Ku, M. S. Suk & O. S. Cho (2018). Converged Influence of Individual, Parental and Social Support Factors to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83-192.
- [11] H. J. Jang, E. S. Kim & S. Y. Song. (2014). Difference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by Children's Personal and Family Background Variables.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27(2), 95-122.
- [12] J. E. Park. (2016). prelimina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pre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5(3), 76-94.
- [13] M. E. P. Seligman. (2011). *Authentic happiness*. Gyeonggi: Mulpuree.
- [14] B. W. Jo. (2017). A Study on Relation of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4(1), 91-115. 3
- [15] J. Taub, & M. Pearrow, (2005). *Resilience through school wide violence prevention*. In. S. Goldstien & R. B. Broolks(Eds.), *Handbooks of resilience in children* .(pp. 107-121). N.Y.: Springer.
- [16] H. K. Kang, (2005). Family strengths and ego-resilience fo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93-102.
- [17] Y. M. Kim & Y. S. Lim.(2013).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 *32Social Welfare*, 15(2), 343-366.
- [18] H. O. Kim. (2010). *Effect of children's social network on self-perceived competence,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 [19] S. K. Yu & H. W. Sim.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20] Y. S. Lee & J. A. Ryu. (2013).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o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based upon Children's Percep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4), 2049-2066.

- [21] K. H. Jeon & S. Song. (2013). A Process by Which Social Capital Inside and Outside of a Family Affects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1), 143-165.
- [22] Y. J. Hwang & K. K. Kim. (2014). The effects of parental educational support on cognitive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0(1), 93-122.
- [23] K. M. Kim. (2010).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Students in Middle & High school - As Intermediation with Ego-resilience - . *Forum For35 Youth Culture*, 25, 40-74.
- [24] G. S. Cho & Y. J. Choi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Matter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6), 477-487.
- [25] J. Y. Kim & J. H. Ju. (2008).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Social Welfare reviews*, 13, 171-190.
- [26] H. S. Chae.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7] S. Y. Woo. (2008).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8] K. S. Han. (2013). *The effects of children's character strengths o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Doctoral Dissertation, Sungsan Hyo University, Incheon.
- [29] J. S. Hong. (1996). *SAS and statistical 40analysis*. Seoul: Tamjin.
- [30] J. Y. Lee & J. S. Chen. (2015). The Effect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on Academic Adjust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Youth Welfare*, 17(1), 287-303.
- [31] Y. G. Choi & S. M. Yu. (2014). Effects of Parental Environment, Ego-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9(14), 125-150.
- [32] H. L. Lee. (2007). Resilience and Risks: The Protective and Vulnerability Roles in Mental Health, School Adjustment, and Pro-social Behaviors of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1), 51-66.
- [33] A. S. Masten.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34] J. Y. Gu.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Positive Emo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Adjustment in Family Life-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 [35] Y. H. Kim. (2010). The Relation of Daily Stress and Ego-resilience to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287-307.
- [36] C. J. Coulton, & J. E. Korbin, (2007). Indicators of child well-being through a neighborhood le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3), 349-361.
- [37] S. C. Sin. (2015).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self-worth and resilience with respect to effects of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children on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4(2), 265-280.
- [38] M. J. Her, M. H. No & Y. S. Choi. (2016).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Verifying Moderated Mediation of Peer Relations Mediated by Altruism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1(1), 29-40.
- [39] Y. G. Ku, M. S. Suk & O. S. Cho.(2018). Converged Influence of Individual, Parental and Social Support Factors to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83-192.
- [40] G. H. Park & J. M. Lee. (2014).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9(4), 997-1013.
- [41] J. Y. Her.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Resilience, Peer Relat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Compet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pecial Medical Car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42] J. H. Yu & H. S. Park. (2015). A Study on the Path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n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chool life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9(3), 323-347.

강 상(Kang Sang)

[정회원]



- 2004년 2월 :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2014년 2월 : 벽성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5년 3월~ 2017년 2월 : 고창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 2018년 4월~ 현재 : 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유아교육, 교육과정
- E-Mail : ruth-ks@daum.net

류 경 희(Kyung-Hee Ryu)

[정회원]



- 2000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사)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2017년 8월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9년 1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혁신단 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 교육과정
- E-Mail : victory9626@daum.net